

종로구 국공립부암어린이집

#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세모·네모·집

김상언 · 김은진  
에스엔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 개요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6다길 10-7
용도	노유자시설(어린이집)
대지면적	360m <sup>2</sup>
건축면적	94m <sup>2</sup>
연면적	490.78m <sup>2</sup>
규모	지하 1층~지상 3층
높이	12m
건폐율	26.11%
용적률	77.81%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외부마감	치장벽돌
내부마감	석고보드 위 도장, 친환경바닥재(마모륨), 자작나무합판
설계	김상언, 김은진
설계담당	민수현
감리	김상언
시공	(주)원일건설
기계설계	세움엠엔씨엔지니어링
구조설계	(주)누리구조
전기설계	(주)엘림전설
설계기간	2016.12.~2017.4.
시공기간	2017.5~2019.4.
공사비	약 19억
건축주	종로구청



남측 지하층 도로에서 바라본 어린이집 전경



북악산 백사실계곡 가는 길목에서 본 어린이집의 모습

아이들에게 어린이집의 첫인상은 ‘엄마와 헤어지는 곳,  
정말 가기 싫은 두려운 곳’이다.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하면 천사처럼 온순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통제불능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따뜻하고, 평온하며, 흥미롭고  
재미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우리는 어린이집이  
‘부모와 헤어져서 잠시 맡겨지는 곳’이 아니라 ‘즐겁고,  
흥미롭고, 가고 싶은 집’이 되기를 바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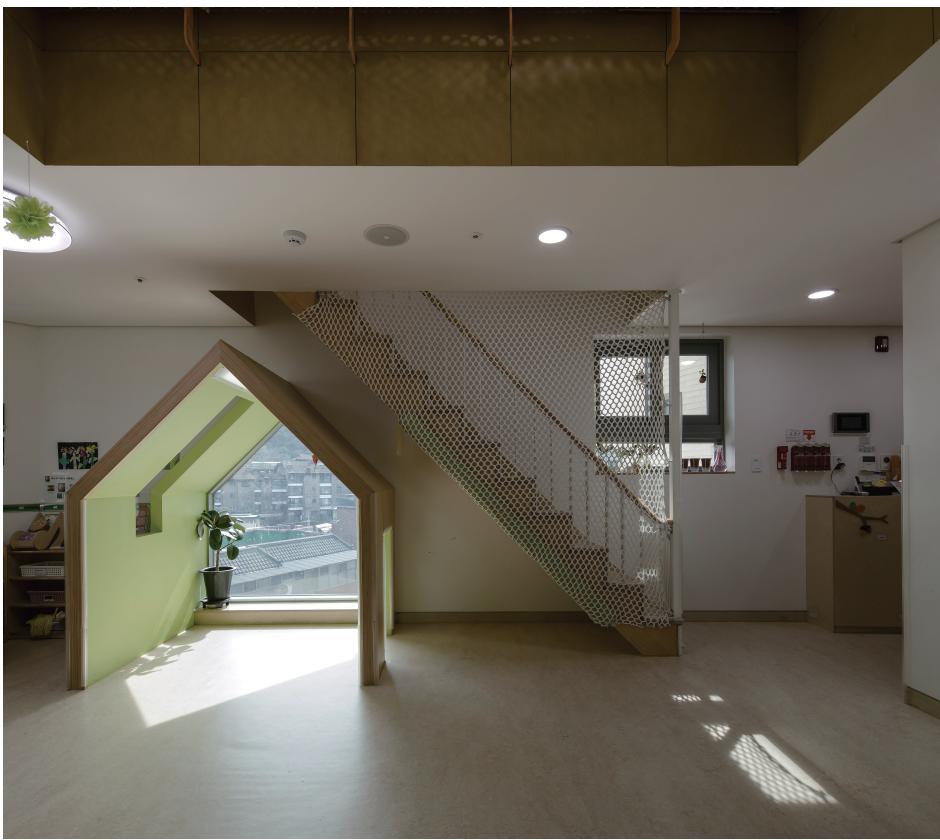






좌 영아(1~2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체험놀이터(지상 1층)

우 경사를 활용한 옥상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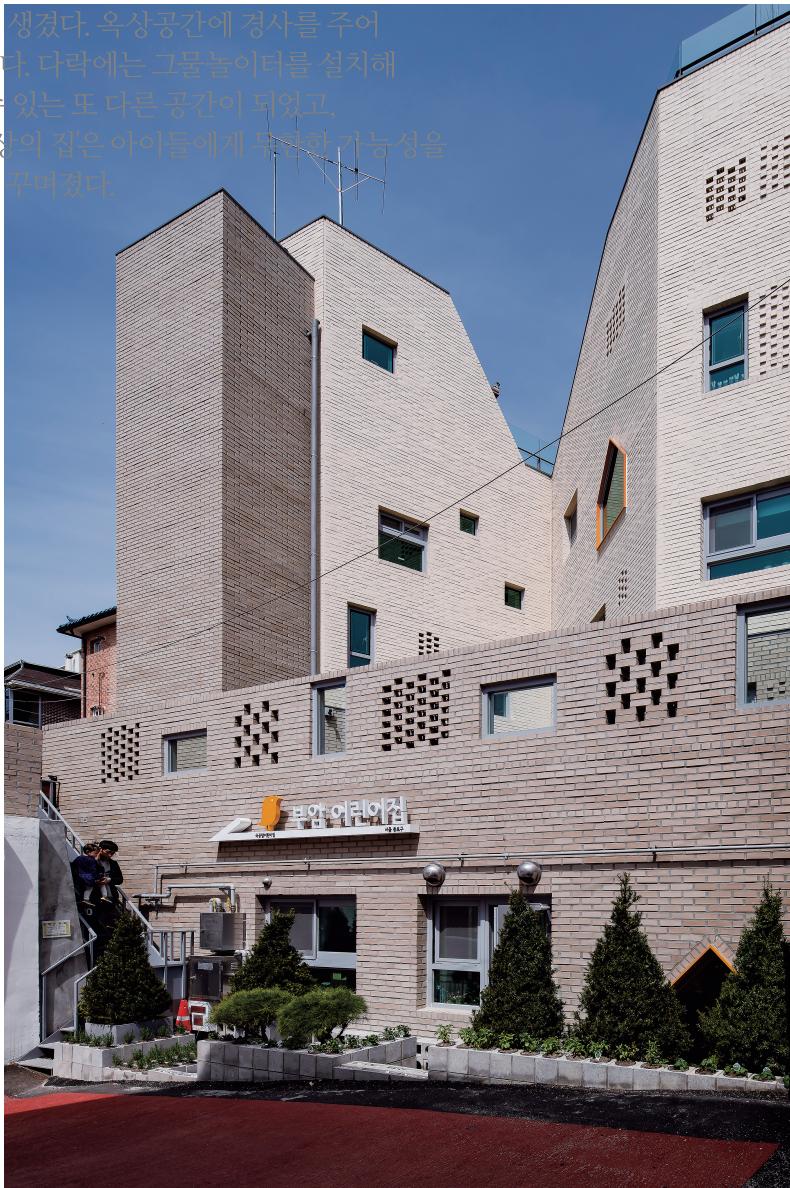
상 하 옥상의 경사면 하부를 활용한 다락 그물놀이터  
상상의 집



좌      작은 삼각형 정원, 선큰마당  
우 · 상      소통의 창  
우 · 하      상상의 집과 아이들

부모로서 어린이집 건축에 대해 공부하고,  
아이들의 공간에 대해 고민한 결과 부암어린이집에는  
다양한 공간이 생겼다. 옥상공간에 경사를 주어  
다락을 만들었다. 다락에는 그물놀이터를 설치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 되었고,  
집 속의 집, '상상의 집'은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  
한종수



단절되어 있던 지하층의 길과 지상 1층의 길을 이어준 모습

## 안전한 보육의 공간

어른들의 언어로 ‘어린이집’은 “아이를 돌보고 기르는 보육시설”이다.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잠시 맡겨지는 곳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서울에는 최근 4~5년 동안 수천 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설되었다(서울 외 지역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성과의 차이가 심하게 난다). 어린이집이 공공건축이 되면서 공립자본을 활용해 기존보다 쾌적한 환경과 시스템이 확보되었음이 분명하고, 일하는 부모들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일터로 향할 수 있게 되었다. 짧은 기간 동안 수치적·정량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감성적이고 정성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발주하고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수행하게 되면서, 여러 선택 과정에서 보다 안전한 방법을 취하게 된다. 아이들의 가능성은 어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궁무진하여 매번 새롭고 획기적인 시도를 해도 그들을 만족시키기 힘든데, 시도조차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이다. 어른들의 시선으로 정의하고 공간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껍데기는 바뀌었으나 그 안의 생활은 비슷한 꼴이 되게 만든다.

◎  
2018  
상



상 남측 지하총 도로에서 바라본  
어린이집 전경

하 북악산 백사실계곡 가는  
길목에서 본 어린이집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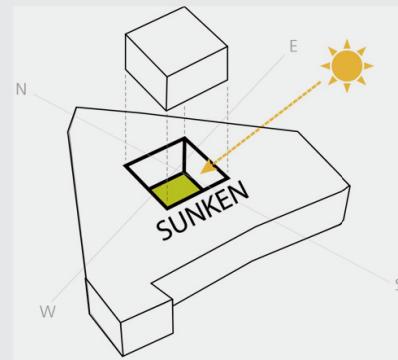
## 처음으로 마주하는 세상, 어린이집

어린이의 눈높이로 생각해 봐야 한다. 그들의 시선으로 ‘어린이집’은 ‘정말 가기 싫은, 두려운 곳’일 수 있다. 아이에게 부모는 우주와 같은 존재이고, 공식적으로 부모와 처음 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는다. 아이들은 항상 이런 첫인상을 가지고 어린이집 생활을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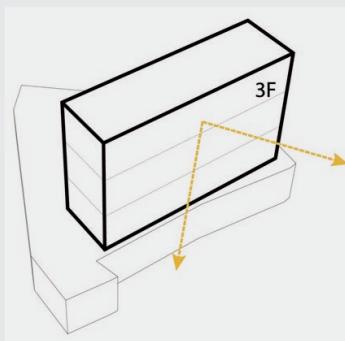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과 악하다는 ‘성악설’이 존재한다. 내 아이에 대해 대부분은 전자라고 느끼지만, 가끔은 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렇게 내 아이도 가끔은 미운데, 남의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는 어떠할까? 아이들은 매우 원초적인 존재라서 심리적으로 안정되면 천사처럼 온순하다. 하지만 반대로 심리적 불안과 불편이 느껴지면 통제 불가능한(악한) 대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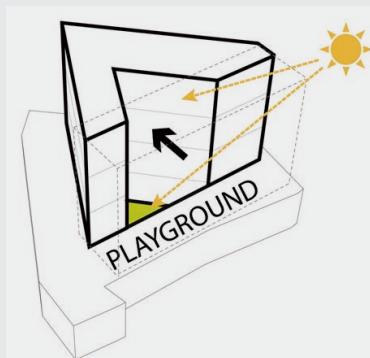
**STEP 1. 최대용적계획**  
요구면적 충족을 위한 지하층 최대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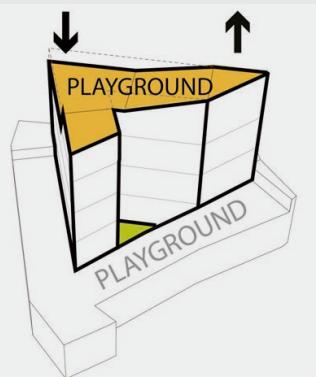
**STEP 2. 대지 중앙 비워내기**  
지하층 환경 개선(자연채광 및 환기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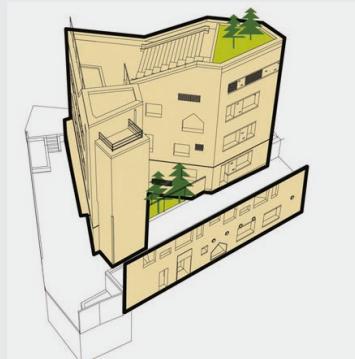
**STEP 3. 지상층 남향 배치**  
보육실 채광 고려



**STEP 4. 채광을 고려한 매스 변형**  
지상층과 지하층 채광, 조망 동시 고려



**STEP 5. 내외부 공간 특화**  
지붕/옥상/다락 특화로 아이들의 공간 형성



**STEP 6. 자연 + 다채로운 입면 형성**  
따뜻하고 부드러운 재료와 자연의 삽입

디자인 프로세스

그렇다면 건축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부분은 보육교사의 뜻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상당히 많다. 어린이집은 ‘제2의 가정’으로서 따뜻하고, 평온하며, 흥미롭고 재미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눈과 마음이 편안한 색채(채도가 높지 않고 편안한)와 재료로 안정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좋다.

반면 어른들에 의해 억지로 정의된 어린이다움(삼각형 창과 구름 모양의 벽지, 빨강·노랑·파랑의 원색 등)에 아이들은 쉽게 싫증을 느끼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오히려 창밖에 무엇이 보이는지, 빛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고민하고, 계절과 시간 그리고 시선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감정과 자극을 느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

아이들은 작은 구조물이라도 무수히 많은 종류의 놀이를 만들어 낼 능력이 있다. 놀이를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고 즐거운 일임이 분명하다.

우리의 건축적 제안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부모와 헤어져서 잠시 맡겨지는 곳’이 아니라 ‘즐겁고, 흥미롭고, 가고 싶은 집’으로 받아들이길 희망한다.

### 대지의 조건 그리고 해결책: 용적률 게임

대지는 조용한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 끝이자 북악산이 시작하는 산자락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의 작은 땅( $360m^2$ )이다. 삼각형의 각 변이 지하 1층, 1층, 3층 높이에서 3개의 길(도로)과 만난다. 건축·조경면적이 각각 대지면적의 30%이고, 법적 놀이터 면적은 대지면적의 47%나 되었다. 보행로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정복 일조권 제한과 충수제한까지 적용하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요구 면적을 채울 수 없는 땅이었다.

2016년 8월 설계공모 당시 80여 개의 팀이 응모하였으나 최종 제출된 작품은 12개 팀에 불과하였고, 그중의 절반은 법규 위반에 해당하였다고 하는데, 주어진 지침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 베네치아 비엔날레 건축전에서 한국관의 주제가 ‘용적률 게임’이었다. 건축법규의 제약 속에서 수익성을 위해 최대의 용적률을 확보하면서 생기는 우리나라 특유의 건축논리를 보여주는

◎  
설계  
단계



- 상 영아(1~2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체험놀이터(지상 1층)
- 중 경사를 활용한 옥상놀이터
- 하 옥상의 경사면 하부를 활용한  
다락 그늘놀이터



⑥  
건축과 도시공간



상상의 집  
작은 삼각형 정원, 선큰마당

것이었다. 우리는 부암어린이집 설계공모를 ‘어린이를 위한 공공의 용적률 게임’으로 받아들였고, 적극적으로 게임에 임하였다.

우리는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층을 최대로 활용하고, 삼각 선큰(선큰마당)을 통해 지하에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옥상공간에는 자연스러운 경사를 주어 미끄럼대와 놀이언덕 등을 만들고, 그 하부에는 다락을 만들어 놀이공간을 조성하였다. 지하부터 옥상까지 비록 작은 공간이라도 벼리는 공간 없이 최대로 활용하여 수납과 놀이공간으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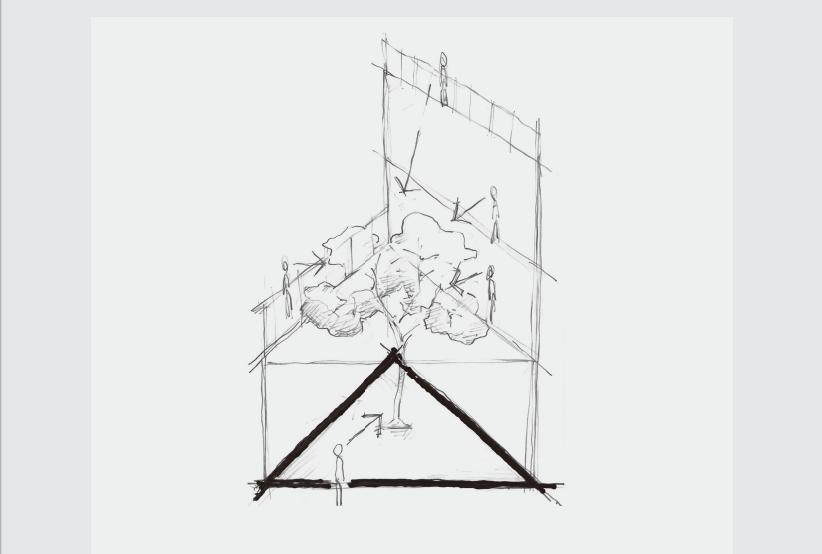
그렇게 조성된 옥상놀이터는 온전히 아이들의 것이 되었다. 탁 트인 전망과 맑은 하늘을 체험하는 것은 기본이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경사면(클라이밍)을 올라 미끄럼대로 내려오면서 끊임없이 달릴 수 있고, 그 옆에는 작은 공연과 야외교육이 가능한 계단이 설치되었다. 다른 측면에는 만지고 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여름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수돗기를 계획하였다.

옥상공간에 경사를 줌으로써 생긴 다락 공간을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꾸미고, 그 물놀이터를 설치하였다. 또 ‘상상의 집’은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은 주는 작은 도구이다. 이곳은 아이들의 ‘아지트’이면서 ‘역할놀이의 집’이 되기도 하며, 책을 읽는 도서관이나 작은 방이 되기도 한다. 집 모양의 창(소통의 창)으로 밖을 보고 관찰하기도 한다.

### 부암어린이집의 세 가지 즐거움: 세모·네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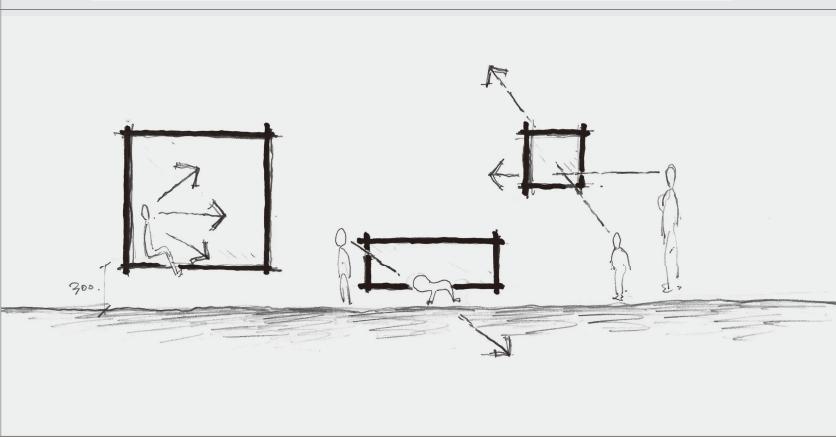
부암어린이집을 계획하면서 공간의 성격 세 가지를 부여하였다. 이 세 가지는 물리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시각적·간접적으로 연결되거나 혼합되어 공간을 이룬다.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변화는 공간과 분위기의 변화로 이어지고, 이는 아이들의 시선과 행동의 변화로 귀결된다.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공간이기 이전에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제안하는 건축적 요소들은 부모와 아이 그리고 보육교사 간에 자연스러운 만남과 소통을 유발하고, 어린이집을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아이가 부모와 헤어질 때의 아쉬움과 여운 그리고 다시 만날 때의 기다림과 기대감 등의 감정을 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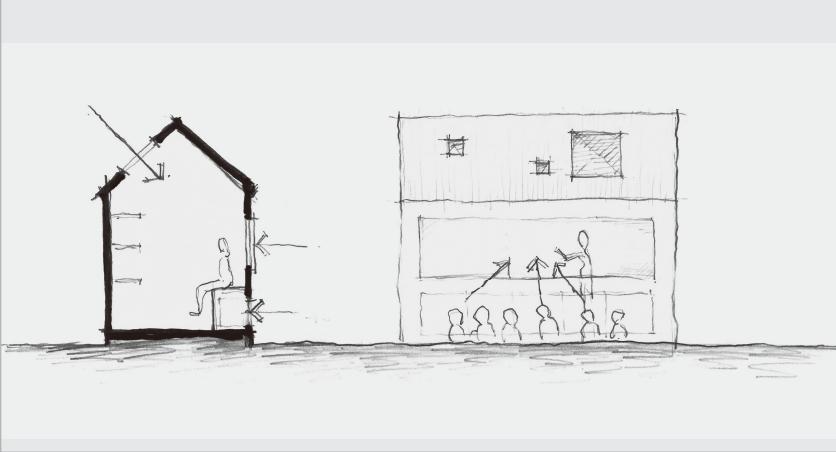
#### [세모] 어린이집의 중심, 선큰마당(외부)

대지의 중앙에 자연을  
끌어들이고, 어린이집 전체가  
편안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이루도록 함



#### [네모] 매개의 공간, 소통의 창(경계)

부모와 잠시 헤어지고 만나는  
공간이자 외부와 시각적으로  
소통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놀이공간



#### [집] 창의적 공간, 상상의 집(내부)

'집 속의 집', 아이들의  
아지트와 같은 공간으로  
자연스러운 학습과 놀이를 유도

부암어린이집의 세 가지 즐거움 [세모·네모·집]



© 김용관



상 소통의 창  
하 상상의 집과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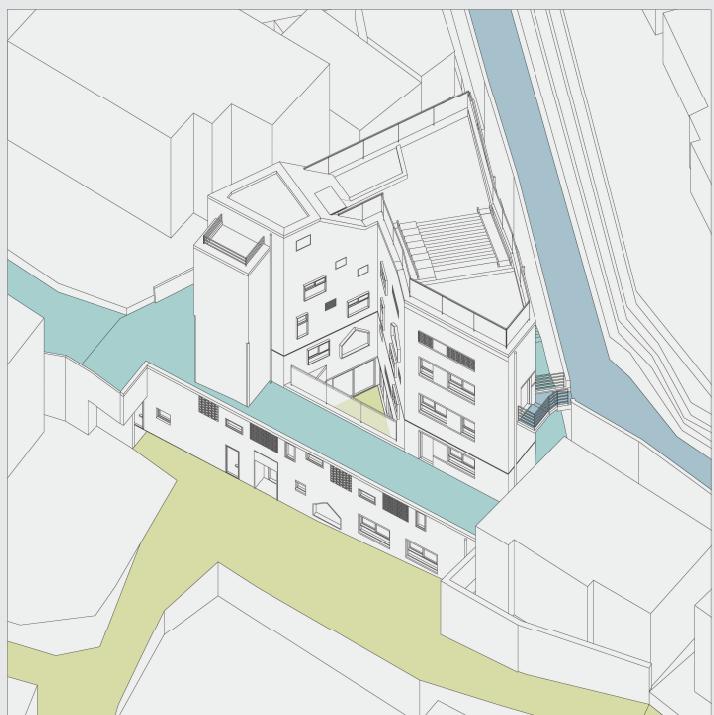
분히 나눌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서로의 시선(소통의 창)을 고려하였다. 작은 공간의 변화(상상의 집) 속에서 아이들은 숨고, 점유하고, 새로운 놀이를 개발한다.

### 프로젝트의 한계: 소규모 공공건축의 숙명

공공건축은 작품이 되기 쉽지 않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입찰을 통한 시공사 선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설계는 설계공모 확산으로 인해 질이 높아졌으나 시공사 선정은 여전히 입찰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부암어린이집의 시공사는 심각하게 부실하여 6~8개월로 예상된 공사기간이 21개월이 지나서야 끝이 났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공사는 대표와 한두 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는데, 낙찰에 성공하면 현장소장을 새로 뽑아 통으로 공사를 맡기는 식이었다.

골조공사가 끝나갈 즈음 시공사가 맡고 있는 현장 두세 곳에서 각종 하자와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 공사에도 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후 거의 모든 공정에서 임금이 미지급



다이어그램

되고, 건축자재가 제때에 반입되지 않았다. 공정이 바뀔 때마다 현장소장이 교체되었고, 인수인계 과정은 생략되었다. 최종 마감공사의 일부는 시공사가 빠진 상태로, 구청에서 별도 발주한 다른 전문업체가 투입되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완성도나 디테일을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비용을 지불받지 못한 하도업체와 일용직 노동자들의 민원에 못 이겨 담당 공무원도 교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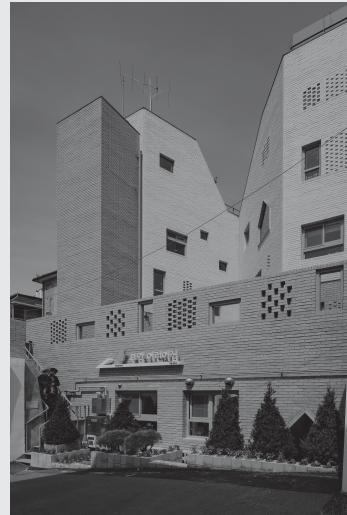
### 내 아이를 보내는 마음으로: 공공건축가

부암어린이집은 우리의 첫 신축 공공 프로젝트였다. 공공건축 설계 공모에서 두 번째 만에 당선이 되었으니 상당히 운이 좋은 편이었다. 당시 우리에게는 돌이 되어 가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직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있었다. 설계 초반에는 당선을 기대하기보다는 부모로서 어린이집 건축에 대해 공부하고, 아이들의 공간에 대해 고민하여 보고자 하였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감정이입이 되어 우리 아이가 다니는 상상을 하게 되었다. 이어 당선이 되니, 사용자의 시선에서 고민하고 설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부암어린이집은 기존 노후화된 어린이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 곳이었다. 기존의 어린이들은 차로 10여 분 거리의 평창동 주택을 임대하여 공사기간 중 머물게 하였다. 그러나 당초 8개월 정도로 예상한 공사기간이 21개월이 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중간에 시공사와 계약해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임시로 이전해 있는 아이들이 문제였다. 시공사 계약해지와 새로운 시공사 선정 등에는 최소 3~4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후 공사 완료 때까지 계산한 기간 동안 임시 어린이집을 유지할 예산이 없었다. 말 그대로 아이들이 거리에 나앉게 생긴 상황이 연출되었다. 가까스로 옥외 부대공사를 제외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등원을 시작하였고, 주말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준공까지 21개월이라는 시간은 정말 힘든 여정이었고, 감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었다. 첫 공공 프로젝트라서 잊고 싶지 않은 개인적 욕심도 있었지만, 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라는 생각으로 벼텨 냈던 것 같다. 자칫하면 엉터리 공공건축이 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현재 이곳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앞으로 어떤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도 이보다 힘들리는 없다는 생각과 자신감이 생겼다.



단절되어 있던 지하층의 길과  
지상 1층의 길을 이어준 모습